

고계쓰인 절(高月院)

고계쓰인 절은 로쿠쇼산 기슭의 마쓰다이라고의 동쪽 ㄸ트머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는 정토종 사원입니다. 마쓰다이라 가문의 보리사로, 초대 당주인 마쓰다이라 지카우지(1394년 사망 추정) 시대부터 지역의 중요한 신앙 장소였습니다.

이 절은 1367년에 훗날 마쓰다이라고가 되는 땅을 개간한 아리와라 가문을 위해 행각승이 ‘자쿠조지 절’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했습니다. 1377년에 지카우지는 절을 확장하고 고계쓰인 절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아미타여래를 기증하고 여러 불당과 건물의 건설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고계쓰인 절은 마쓰다이라 가문의 보리사가 되었고, 번영은 수 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쓰다이라 가문의 후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천하를 통일하고 도쿠가와 막부(1603~1867)가 성립되자 고계쓰인 절은 광활한 사찰 영지를 받았습니다. 3대 도쿠가와 쇼군 이에미쓰(1604~1651)는 산문(절의 문)과 본당을 기증했습니다. 이후 쇼군 가문은 조상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고계쓰인 절을 극진히 보호해 왔습니다. 도쿠가와 가문 조상의 묘는 경내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노대에 있으며, 역대 주지스님의 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고계쓰인 절에서는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침 근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을 기뻐하는 아침 수행으로, 부처님께 독경을 올린 후에 주지스님의 법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